

SSM[기업형 수퍼마켓] 입점 규제 및 중소 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

| | |
|----------|-----|
| 의안 번호 | 719 |
|----------|-----|

제출일자 : 2009년 9월 9일

제안자 : 홍인수 의원 외 2인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중소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대기업의 대형마트 진출 및 신용카드사들의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의 이중적 고통속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 지난 연말부터는 경제위기까지 덮쳐 중소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최근 대기업은 막강한 자본력과 영업망을 갖추고 동네 골목에까지 SSM을 진출시키고 있어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 야채, 청과, 식육점, 철물점 등 골목 상권을 유지해온 지역의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사회적 약자로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3. 이 송 처

국회,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울산광역시의회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

최근 대기업은 막강한 자본력과 영업망을 갖추고 동네 골목에까지 SSM을 진출시키고 있어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 야채, 청과, 식육점, 철물점 등 골목 상권을 유지해온 지역의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한 중소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건의한다.

1.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97년 이후 유통시장의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이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선 이후 그동안 대형마트로 인해 재래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기업은 대형마트에 이어 SSM 진출로 동네 슈퍼 및 재래시장을 비롯한 골목 상권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울산시의 자료를 보면 울산지역의 13개 SSM의 연간매출액은 7-80억(추산-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으로, SSM 1개가 골목길 상가 5-6개의 매출과 맞먹는 것이다. 따라서 SSM이 골목길에 들어오면 인근에 6개 정도의 상가(슈퍼, 야채, 청과, 식육점, 철물점 등)는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형마트 및 SSM의 입점 제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및 품목 제한,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안을 마련하여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놓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

안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조례안을 개정하여 SSM 입점을 규제할 것을 건의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용도별 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현재의 조례에는 대형마트와 1000㎡-3000㎡의 SSM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1000㎡이상의 SSM과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3.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 상인 보호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중소 상인들은 그동안 대기업과의 차별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내역을 공시하고 불공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중소상인 대표단체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지역 중소 상인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중소 상인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09. 9. 18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19)

1. 의안명 :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규제 및 중소 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9. 9(수)
- 나. 제출자 : 홍인수 의원외 2명
- 다. 위원회 회부 : 2009. 9. 10(목)
- 라. 위원회 심사 : 2009. 9. 14(월)
- 마. 위원회 재심사 : 2009. 9. 17(목)
- 바. 위원회 재심사 : 2009. 9. 18(금)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홍인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중소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대기업의 대형마트 진출 및 신용카드사들의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체계의 이중적 고통속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며 지난 연말부터는 경제위기까지 덮쳐 중소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대기업은 막강한 자본력과 영업망을 갖추고 동네 골목에까지 SSM을 진출시키고 있어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 야채, 청과, 식육점, 철물점 등 골목 상권을 유지해온 지역의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 약자로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임

나. 주요골자

-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건의함
- 도시계획조례안을 개정하여 SSM 입점을 규제할 것을 건의함
-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 상인 보호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함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원익희)

- 본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게 되면 건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 적정한 기관 즉 국회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에 이송 하게됨
- 건의내용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송 받은 기관은 그 기관의 형편에 따라 처리토록 되어 있음

※ 참고사항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발의연월일 : 2009. 9

- ▶ 발 의 자 : 이재현의원 외 6명
- ▶ 개정이유 :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에 따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함
- SSM(기업형 슈퍼마켓)입점 규제 건의안 채택 자치단체
 - ▶ 천안시의회, 군산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수원시의회 등

5. 심사결과 : 수정채택

- 농협하나로 마트 규제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어 삭제함.
- 수정 건의안 : 별도 첨부